

## 미, 대형TV 잘 팔린다

올해 미국 TV시장에서는 프로섹션TV·대화면TV 등 대형TV의 판매량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 가전제품제조협회(CEMA)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미국내 TV판매는 0.2% 증가에 그친 반면 대형TV 판매는 16%로 급증했다.

CEMA는 현재 미국 TV시장에서 대형TV의 시장 점유율은 전체의 5%에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 대형TV가 미국 TV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CEMA는 대형TV가 중·소형 TV에 비해 마진폭이 높기 때문에 TV 제조업체들이 대형TV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는 점이 시장 확대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TV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던 디지털TV에 대해 고가와 프로그램 부족 등을 이유로 구매를 주저하는 수요자들의 발길이 대형TV 쪽으로 몰리고 있는 점도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형TV의 업체별 시장 점유율에서는 소니가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지켰다. 소니는 올 2·4분기 시장 점유율이 24.5%로 지난

해에 비해 2.5% 증가했다. 도시바는 지난해 9.3%의 시장 점유율에서 올 2·4분기에 19.3%로 급상승, 2위로 도약했다. 다음으로 톰슨과 히타치가 각각 3, 4위였다.

전체 TV시장에서는 네덜란드의 필립스가 올 2·4분기에 16.6%의 시장 점유율로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고 산요, RCA, 제니스, 소니가 각각 2, 3, 4, 5위로 뒤를 이었다.

특히 올 2·4분기에는 산요, 마쓰시타, 도시바, 빅터 등 일본 업체들의 판매가 급신장했다.

한편 CEMA는 디지털다기능디스크 플레이어, 위성방송 장비, 캠코더 등 TV주변기기 제품들이 현재 급속한 판매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 디지털AV 세계 수요 급팽창

디지털다기능디스크(DVD) 플레이어, 미니디스크(MD) 오디오, 디지털캠코더 등 디지털TV 상품의 세계 수요가 급속히 확대돼 올해는 모두 작년대비 1.5~2배 정도의 높은 신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해까지는 DVD플레이어의 경우 북미 중심으로, MD오디오와 디지털캠코더는 일본으로 수요가 몰리는 시장 구도가 뚜렷

했으나 올 들어서는 저조했던 지역이 수요 증가를 주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DVD플레이어의 세계 수요는 지난해의 226만대보다 2.3배 많은 540만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97년 판매개시 이후 홈시어터(안방극장)용을 기반으로 예상을 웃드는 신장세를 지속해 신장세를 지속해 온 북미 시장은 일반 AV기기 용도로도 수요가 본격 확산되는 것에 힘입어 올해는 2.4배 증가한 332만대에 이를 전망이다.

본격적인 시장 형성기에 있는 유럽은 지난해(80만대)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90만대로, 일본도 전년의 두배인 50만대, 나머지 아시아 지역도 전년의 53만대에서 80만대로 각각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MD오디오 세계 수요는 올해 전년의 764만대에서 1127만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북미의 경우 2.2배 증가해 100만대 규모를 넘어서고, 유럽도 80%나 늘어나 200만대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결과 지난해 세계 전체의 73%를 차지하는 일본 시장의 비율은 67%로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수요는 지난해의 560만대에서 750만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디지털캠코더 세계 수요는 올해 전년의 173만대에서 305만대로 두배 가까이 늘 것으로 예측된

다. 특히 전년 18만대에 불과했던 북미 수요가 올해는 90만대로, 30만대였던 유럽이 70만대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계 전체 수요에서 73%를 차지하는 일본시장 비율이 올해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수요는 116만대에서 136만대로 20만대 정도 늘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디지털AV 상품의 이같은 수요 급증에 대응해 일본의 관련 제조업체들은 국내에서의 증산과 동시에 해외로의 생산 이관도 가속화하고 있다.

DVD플레이어 분야에서는 마쓰시타전기가 국내 생산력 배증과 함께 중국 현지 생산도 확대하고 있고, 소니는 말레이시아 현지 생산에 착수해 현재 월 10만대 규모의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다.

파이어니어는 지난 7월부터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양산을 개시했는데, 말레이시아에서는 북미용을 중심으로 월간 7만대를 생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빅터도 중국 현지 생산에 착수했고, 미쓰비시전기도 후나이전기와 합작으로 중국 생산을 추진중이다.

이밖에 샤프는 말레이시아에서 DVD플레이어와 MD오디오, 디지털캠코더를 국내와 병행해 생산하는 체제를 구축했는데, DVD 플레이어의 경우 국내는 휴대형으로 특화하고 있다.

### 인터랙티브TV 시장규모 2004년200억달러 달예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시기를 같이해 인터랙티브TV 시장이 크게 성장할 전망이다. 「컴퓨터커런츠」가 시장조사업체 포레스터 리서치의 조사결과를 인용, 보도했다.

포레스터 리서치가 방송사, 케이블업체, 소프트웨어업체 등 60개 이상의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내놓은 보고서 「인터랙티브TV 캐시플로(Cash Flows)」에 따르면 인터랙티브TV 시장은 향상된 TV 조작기능과 프로그램 가이드, 인터넷 접속기능 등에 힘입어 급속한 대중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오는 2004년 200억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중 110억달러는 광고, 70억달러는 상거래, 20억달러는 가입자요금이 차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 대형 저온 다결정 실리콘 TFT LCD 세계 최초 양산

세계 최초로 대형 저온 액정표시장치 다결정 실리콘 박막트랜지 액정표시장치(TFT LCD) 양산 공장이 가동을 시작했다.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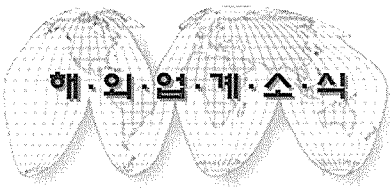
본 도시바가 최근 「저온 폴리실리콘 대형 LCD 양산동(NCR동)」을 준공, 공장의 전모와 앞으로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도시바는 1기라인과 2기라인을 차례로 구축하기로 하고 우선 1기라인 중 50%를 가동, 월 1만장 규모의 생산에 들어갔다.

지난해 「사활을 건 대형 투자」라며 업계의 시선을 모은 대형 저온 다결정 실리콘 TFT LCD 전용 양산라인의 1기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이다.

도시바는 이번 대형 저온 다결정 실리콘 TFT LCD의 본격 양산을 통해 가격 경쟁력이 높은 한국 및 대만의 TFT LCD 업체와의 차별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의 아모퍼스 실리콘 TFT LCD 생산라인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저온 다결정 실리콘 TFT LCD를 양산하기 위해 건설한 공장으로는 소니와 도요타자동차기제작소의 합작회사인 ST LCD가 도시바와 비슷한 시기에 투자해 지난 4월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공장이 있다. 그러나 ST LCD가 생산하는 제품은 중소형 제품이라는 점에서 도시바와 다르다.



### 아시아 지역 초고속 인터넷 시장 진출

미국 인텔이 아시아 지역의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 진출한다.

인텔은 홍콩의 퍼시픽 센트리 그룹과 제휴, 아시아 지역에서 초고속 인터넷 사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텔은 퍼시픽 센프리와 이미 설립한 합작사 「퍼시픽 컨버전스」를 「퍼시픽 센트리 사이버웍스」로 재편, 이를 통해 초고속 인터넷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인텔은 사이버웍스에 5000만달러를 투자하는 한편 초고속 인터넷망 구성을 위한 백본에 활용되는 칩·소프트웨어·시스템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인텔은 이번 투자를 통해 사이버웍스의 지분 13%를 보유하게 된다.

인텔은 또 홍콩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 인터넷 계획 사업인 「사이버포트」에도 사이버웍스의 참여가 확실시 된다고 보고 이 사업 수주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 사업은 규모가 17억4000만달러에 달한다.

사이버웍스는 앞으로 중국·인도·말레이시아 등 주요 아시아 지역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퍼시픽 센트리 그룹은 지난 6월부터 인공위성과 케이블 TV를 활용한 초고속 인터넷 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텔도 지난 4월 데이터호스팅·인터넷접속·애플리케이션임대 등 인터넷 사업을 전담하는 「인터넷 데이터 서비스(IDS)」 사업부를 신설하는 등 최근 인터넷 사업을 본격 강화하고 있다.

### 특허 공유

미국 컴퓨터업체인 IBM과 네트워킹업체인 스리콤이 특허 상호이용 계약(크로스 라이선스)을 체결했다.

두 회사는 이에 따라 상대방의 특허를 자사의 제품개발에 이용할 수 있게 돼 컴퓨터와 통신 네트워크 기술을 통합, 경쟁력이 높은 신제품을 조기에 상품화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정보기술(IT) 시장에선 최근 들어 컴퓨터와 통신 기술의 통합이 가속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 분야의 업체 간 전략적 제휴가 중요해지고 있다.

두 회사는 이번에 체결한 계약의 조건에 대해 밝히지 않았으나 일부 소식통은 이번 계약이 향후 5년간 10억달러의 가치를 갖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장분석가들은 미국 최대의 특

허 보유회사의 하나인 IBM이 최근 델컴퓨터 및 데이터 저장장치 제조업체인 EMC 등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이번에 스리콤과 특허 상호이용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자사 특허기술의 상용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스리콤은 핸드헬드 기기 관련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접속 카드, 모뎀 등과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시스템LSI 공동 개발

일본 마쓰시타전기산업과 일본빅터가 하이비전의 가격을 대폭 낮출 수 있는 시스템 비메모리(LSI)를 공동개발했다.

양사는 그동안 세계였던 칩을 원칩화해 면적을 종전의 절반 정도인 명함 크기로 축소하는 한편 부품수를 대폭 줄이고 회로도 간소화한 새 시스템 LSI를 탑재할 경우 디코더의 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쓰시타와 일본빅터가 공동 개발한 것은 현행 아날로그 하이비전방송인 「MUSE」방식을 지원하는 디코더용 시스템 LSI로 마

쓰시타의 D램 혼합기술을 사용해 원칩화에 성공했고, 일본빅터의 영상처리회로기술로 화질을 대폭 개선했다.

일본빅터는 이 칩을 사용한 TV 제품을 올 가을부터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양사는 그동안 하이비전의 보급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가격을 대폭 낮춤으로써 디지털 방송으로 완전히 대체될 때까지라도 아날로그 하이비전의 보급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 MP3P 시장 진출

네덜란드 필립스가 MP3 플레이어 시장에 진출한다.

이에 따르면 필립스는 내년 1·4분기 중으로 MP3 플레이어를 본격 출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자사 가전제품 탑재 및 차량용 MP3 플레이어 개발 등으로 MP3 플레이어 용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필립스는 자사 MP3 플레이어에 충분한 용량을 지원하는 한편 1시간 동안 재생할 수 있는 플래시메모리를 장착할 예정이다. 또 필립스는 현재 인터넷음반 관련 업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음반 보안 규격인 SDMI(Secure Digital Music Initiative)를 자사

MP3 플레이어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립스는 스트리밍업체 리얼네트웍스와도 제휴, 리얼네트웍스의 다양한 인터넷 소프트웨어(SW)를 자사 MP3 플레이어에 탑재할 계획이다.

필립스는 우선 리얼네트웍스가 지난 5월 발표한 MP3 전용SW 「리얼주크박스」를 탑재할 것으로 보인다. 리얼주크박스는 MP3파일 다운로드시 제목별, 장르별 등으로 세분화해 저장할 수 있게끔 하는 SW다.

필립스는 MP3 플레이어 시장 진출은 현재 이 시장 진입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일본 도시바·소니·마쓰시타 등 주요 가전업체와의 시장 경쟁을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 대만 올 노트북820만대생산 일 제치고 '세계 1위'에

올해 대만의 노트북PC 생산량이 크게 늘어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라설 것이라고 「전파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대만의 노트북PC 생산 대수는 지난해 대비 35% 늘어난 820만대에 이르러 세계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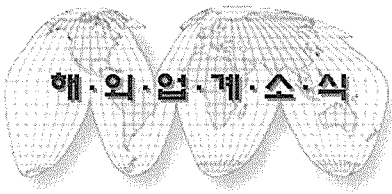
대만 자책회 시장정보센터

(MIC/III)에 따르면 98년 대만의 노트북PC 출하 대수는 세계시장의 약 40%인 608만대로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나 올들어 대만업체의 생산이 호조를 보이고 있어 이대로 가면 올해 총 생산량이 820만대에 달해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1위의 노트북PC 생산국이 될 전망이다.

지난 상반기까지 광달·에이서·영업달·대중·인보·화우 등 대만의 주요 노트북PC업체 6개사의 생산 대수는 370만대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상반기와 하반기 출하 비율이 4대 6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이 6개사의 생산 대수만 900만대에 달해 대만 노트북PC업체의 총 생산 대수는 1000만대 이상을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인 IDC는 지난해 세계 노트북PC 생산 대수는 1550만대였고 올해는 15.6% 증가한 1800만대의 수요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세계시장의 회복과 저가형PC의 등장, Y2K 특수 등에 힘입어 신장률은 지난 상반기에 이미 20%를 웃돌았다.



### 미, 차세대 암호기술 표준화 '운곽'

전자상거래 보급이 관건인 차세대 암호기술을 둘러싸고 표준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미국 상무부는 정부가 채용하는 차세대 암호기술「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s)」의 후보로 미국과 유럽 지역 등의 업체 및 단체가 제안한 5개 타입의 기술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이들 5개 기술을 앞으로 1, 2개로 더 압축, 오는 2001년 여름까지는 표준화 기술로 확립해 전면 채용하는 한편 기본기술을 무상 공개해 세계 각 국으로의 보급도 촉진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가 최종 선택한 기술은 미국 정부기관과 거래나 정보교환이 있는 유력 기업들을 통해 다른 국가에도 확산될 것으로 확실시되며 동시에 암호기술 표준화 움직임은 더욱 미국 주도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AES 후보로 선정된 5개 기술은 미국 IBM의 「MARS」를 비롯해 미국 RSA데이터 시큐리티의 「RC6」, 영국·노르웨이·이스라엘 공동연구 그룹의 「서펜트(Serpent)」, 미국 미네아폴리스연구 그룹의 「투피시(Twofish)」등이다.

상무부는 전세계에서 응모한 15

개 기술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암호해독 실험을 실시해 해독이 가장 어려운 기술 순으로 5개 후보를 선정했다.

일본에서는 일본전신전화(NTT)가 기술을 제안했으나 사용의 편리성이 뒤지는 것 등이 이유로 탈락됐다.

이들 5개 암호기술은 해독의 난이도를 표시하는 정보량의 크기가 256비트, 192비트, 128비트 등 3가지 타입으로 현행 세계표준 암호기술은 「DES」의 56비트를 웃돌아 PC를 연결하는 간단한 정보에서 대형 컴퓨터간 정보교환까지 광범위의 암호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상무부기술표준국(NIST)이 지난 77년 표준으로 정한 DES는 컴퓨터의 계산력 향상 등으로 해독기술이 크게 발달됨에 따라 안전성 저하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 액정 화질 향상 신기술 개발

일본 마쓰시타전기산업은 액정표시장치 화질을 브라운관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마쓰시타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영상의 명암에 따라 광원의

밝기를 자동제어하는 기술 등을 채용해 밝은 장면에서는 최대 휘도(밝기)를 대폭 높이고, 어두운 장면에서는 빛이 새는 「광누출」을 반감시켜 약간 회색이 되는 문제를 해소한 것이 특징이다.

액정표시장치 광원으로는 일반적으로 형광램프를 사용하는데, 신기술에서는 램프 구동방법을 개량해 영상장면의 밝기 변화에 따라 순간적으로 광원 밝기를 제어하는 동시에 광원 밝기와 연동해 영상신호도 조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밝은 장면의 경우 최대 휘도를 종래에 비해 약 1.4배 높였고, 밝기를 표현할 수 있는 약 2.8배로 대폭 확대해 브라운관에 맞먹는 탄력있는 동영상을 실현하고 있다.

마쓰시타의 신기술은 또 영상처리하는 일반의 대규모집적회로(LSI)에 장착 가능하기 때문에 동영상을 표시하는 액정표시장치 기기에 폭넓게 응용할 수 있다.

액정표시장치는 문자표시기능은 우수하지만 TV 영상 등 동영상 구현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

그 원인은 광원을 밝게 하면 최대 휘도는 올라가지만 그때 광누출로 화면이 다소 회색을 띠게 되고, 소비전력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 세계 PC시장 먹구름

PC 가격의 급속한 하락세와 수익감소, 성장을 둔화 등으로 PC 업계의 상황이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미 「C넷」이 컨설팅업체인 메릴린치의 보고서를 인용, 보도했다.

이같은 전망은 현재 PC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서 주목된다.

메릴린치에 의하면 저가 PC의 폭발적인 인기로 PC 평균가격은 올해부터 오는 2002년에 걸쳐 해마다 11.5%, 12.1%, 11%, 10%씩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결과 미국시장의 경우 PC 평균가격이 올해 1800달러, 2000년과 2001년에 각각 1537달러와 1350달러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PC 판매 증가율도 둔화돼 올해 20.8%에서 내년에는 증가율이 17.4%로 떨어지고 2001년, 2002년에도 14.4%와 12.5%로 낮아질 것이라고 메릴린치는 내다봤다.

PC 매출액에 있어서도 가격하락세의 영향으로 신장률이 올해 7%에서 2000년, 2001년에 각각 3.3%, 1.8%로 떨어지고 2002년에는 1.3%에 불과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기업용 PC시장의 포화로

업체들의 고전이 예상되나 Y2K(컴퓨터 연도표기 오류) 문제와 관련한 중소기업들의 막바지 수요가 시장을 어느정도 받쳐줄 것으로 분석됐다.

유럽시장은 기업 및 가정용에서 모두 강세를 띠 전망이며 아·태 지역 역시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면서 강한 수요회복세가 예상된다고 메릴린치는 밝혔다.

## 세계 ATM시장 큰폭 신장

올 2·4분기 전세계 ATM장비 시장 성장률이 3%에 그친 데 반해 2·4분기 ATM장비 시장은 24%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2·4분기에 판매된 ATM장비의 78%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들이 구매한 것으로 ISP판매 비중이 높은 반면 캠퍼스 및 기업을 상대로한 판매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ISP들의 ATM장비 수요증가는 최근들어 ISP들이 ATM 기반으로 데이터·음성 통합서비스 제공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장비별로는 ATM 원거리통신망(WAN) 스위치가 2·4분기에 5억5400만달러어치 팔려 25% 증가의 신장률을 나타냈다.

이 시장에서는 최근 어센드를

인수한 루슨트가 36%의 시장점유율을 올려 1위를 차지했고, 시스코와 노텔이 각각 23%, 12%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ATM 근거리통신망(LAN) 순위는 2억3500만달러가 판매되어 14%의 성장률을 올렸다. 이 시장에서는 포어시스템스가 32.9%의 시장점유율로 1위에 올랐고, 시스코가 27.6%, 노텔이 13.3%로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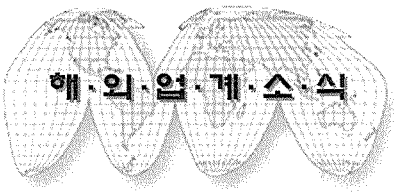
음성인터넷(VoIP) 게이트웨이는 2·4분기에 1억9000만달러가 판매되어 작년동기보다 47% 성장했다.

## 2005년 아·태 인터넷 사용자 4억 육박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인터넷 사용자는 98년 말 3900만명에서 서기 2005년 말에는 3억 7500만명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정보기술 조사회사인 양키그룹은 2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또 98년 말 현재 1900만명 이하에 불과했던 요금 지불 가입자가 2005년 말에는 1억 7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2001년 약 4000만명이 온라인에 들어감으로써 이 지역 최대의 인터넷



사용국이 되고 2005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앞질러 세계 최대의 인터넷 사용국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터넷 사용자 및 가입자 증대는 전자우편을 이용한 상거래의 확대라는 점에서도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 일, 반도체장비 경기 '바닥졌다'

일본 반도체 장비시장이 오랜 부진을 털고 본격적인 회복세로 돌아섰다.

일본 「전과신문」이 일본반도체 제조장비협회(SEAJ)의 자료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오는 2002년까지 수출을 포함한 일본산 반도체 제조장비 판매액의 연평균 신장률은 19.9%에 이를 전망이다.

최근 반도체업체들이 늘어나는 로직IC 및 플래시메모리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설비증설에 적극 나섬에 따라 그동안 부진을 거듭해온 일본산 반도체 제조장비의 수출액과 일본 시장의 판매액이 올들어 증가세로 전환했다.

특히 지난 1·4분기(4~6월) 일본산 반도체 제조장비의 수출액은 전년동기에 비해 35.8%나 증가했고 일본시장의 판매액도

40.1% 늘어났다.

이같은 추세에 따라 올해 수출을 포함한 일본산 반도체장비의 판매액은 전년대비 14.1% 증가한 9390억엔에 이르고 내년에는 18.8% 증가한 1조1155억엔을 기록할 전망이다.

또 2001년에는 25.2% 증가한 1조3967억엔, 2002년에는 21.8% 증가한 1조7015억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2001년과 2002년에는 20%를 넘는 고성장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2001년에는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97년도의 1조3200억엔을 넘어설 전망이다.

장비별로 보면 올해에는 대부분의 장비가 지난해 실적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웨이퍼 제조장비가 웨이퍼의 대구경화 추세에 힘입어 29.3%의 높은 신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또 웨이퍼공정용 처리장치는 14%, 검사용 장비와 반도체 제조장비용 관련장비는 각각 16.5%와 12.8%씩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 웨이퍼 공정용 처리장치와 조립용 장비는 2001년이 되면 절정을 이루었던 지난 97년도 실적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며 마스크 제조 장비 및 검사장비, 반도체 제조장비용 관련장비도 2002년에는 97년도 실적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한편 SEAJ는 수입을 포함한 일

본 반도체 제조장비 시장의 판매액은 2002년까지 연평균 13.6%의 신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올해에 전년대비 7.4% 증가한 4773억엔을 기록하고 내년에는 12.4% 증가한 5364억엔, 2001년에는 19.35% 증가한 6397억엔, 2002년에는 15.6% 증가한 7395억엔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아·태 PC시장 34% 성장

지난 2·4분기 아시아·태평양 PC시장은 지역경제 회복세와 가격하락세에 힘입어 작년동기비 34%의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IDC 자료에 의하면(일본 제외)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60만대보다 34% 늘어난 350만대의 출하량(48억달러)을 기록했다.

IDC는 이같은 성장이 경제회복에 따른 것이라 분석하고 소비활성화와 환율 강세, 저금리 등이 PC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가격하락세와 정부기관의 전산관련 예산증가, Y2K에 대비한 시스템 업그레이드붐이 PC수요 회복의 촉진제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성장률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심각한 침체를 경험했던 시장의 회복세가 두드러졌는데 인도네시아의 경우 이 기간 461%의 출하증가율을 기록했으며 대만이 107%, 한국이 78%, 태국이 62%의 증가율을 보였다.

젝트에서는 제1단계 과제로 2001년 말까지 네트워크의 고도화를 비롯해 개개 이용자의 네트워크 환경을 정보통신측에서 자동으로 감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자동 전송하는 기술 등 사용하기 편리한 네트워크 실현에 불가결한 요소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만장 규모로 CDR를 공급받고 있는 미쓰비시화학은 금년 말까지 위탁 생산량을 월 2000만장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리코도 이달 중에 대만의 광디스크업체인 라이텍을 통해 월 300만장 규모로 CDR 위탁생산을 시작해 내년 4월 이후에는 위탁생산 규모를 월 1000만장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대만 CDR업체로부터 월 300만장 규모로 공급받고 있는 히타치막셀 역시 올해 안에 위탁생산량을 월 500만개 규모로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2001년말 실용화

일본에서는 차세대 네트워크 개발이 내년부터 본격화, 오는 2001년 실용화할 전망이다.

일본 우정성은 일본전신전화(NTT), 마쓰시타전기산업, 게이오대학 등 산·관·학 공동으로 내년부터 21세기형 차세대 정보통신 기술개발을 추진, 2001년 말까지는 동영상을 원활히 송신할 수 있고 복잡한 PC 조작이 불필요한 차세대 인터넷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실용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우정성은 또 차세대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자상거래를 보급하는데 필요한 과금소프트웨어 등의 개발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차세대 네트워크 조기 실용화 방침은 미국에 뒤져 있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일본기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주목된다.

이번 산·관·학 공동개발 프로

## 일, CDR 대만 위탁생산 확대

미쓰비시화학, 리코, 히타치막셀 등 일본의 주요 추기형 콤팩트디스크(CDR) 업체들이 대만 업체에 대한 위탁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최근 세계 CDR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높은 대만 업체와 잇따라 위탁생산 부문에서 제휴를 맺고 시장 점유율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기록미디어공업회에 따르면 CDR는 PC용 기록매체 및 음악 녹음용으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세계 시장이 전년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6억3000만장 규모에 달했으며 올해에는 미국·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추세에 힘입어 15억장 이상의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현재 대만의 위탁생산업체인 CMC마그네틱으로부터 월 1000

## 전세계 D램 출하액 상반기 40% 급증

올해 상반기 전세계 D램 출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40% 가까이 성장, 전체 반도체 경기 회복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램과 플래시 메모리 등을 포함한 메모리 반도체 전체 출하액도 26%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세계 반도체 무역통계(WSTS)가 최근 집계·발표한 99년 상반기 세계 반도체 출하실적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반도체 전체 출하액은 전년 동기보다 10% 정도 늘어난 672억달러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